

자기 십자가

이상원(기학연 연구위원,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어느 한국 선교사가 십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일이 있다. 고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이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지와 한국사회의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언제 찾아 올지 모르는 핍박을 예상하며 항상 긴장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하는 선교지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이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사회가 누리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느껴졌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태풍이 휘몰아쳐도 그 중심인 눈에는 한없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며, 중국에서도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공안의 감시망을 의식하면서 긴장해야 한다. 대만이나 일본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숭배의 힘에 눌려서 여간해서는 개종자를 얻기가 어렵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서 선교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러시아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형식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러시아 정교회와 극우적인 스킨헤드족의 위협을 늘 의식해야 한다. 이 모든 나라들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선교사역을 하려면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예상해야 한다(막8:34).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없을까?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생활과 봉사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이 영역에서 성경이 제시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숨어 있던 “자기 십자가”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직장생활, 학문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예술활동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수행하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방해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방해세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작전을 시작한다.

어느 기독교 변호사가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결의가 샘솟는다. 그러나 일단 교회를 벗어나서 법조계에 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 서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이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은 법조계 안에서 신우회를 조직하여 동료 법조인들을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 변호사 업무의 목적과 의미,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나아가서는 입법활동 등을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 겪는 어려움이다. 사회적 다수의 눈치를 보고 법을 제정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불문을 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며,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왕따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고백에 의하면 지성인들이 회집하는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의 경우에 200명이 넘는 법조인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자기가 속한 법의 영역 안에서의 삶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두사람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기독교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임산부가 사소

한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나치시대의 안락사법 만큼이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어느 기독교법조인도 이 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본 일이 없다.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배아파괴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까지 올라가 있지만 개정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신실하다고 알려진 명망있는 모 기독교법조인에게 생명윤리안전법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이 법의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변호사수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사한 일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법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활동을 하고자 헌신한 기학연 소속 동역자들도 이 법조인과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기독교생물학자가 다윈 이후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을 과학적인 태도로 오해하고 그 틀 안에서 모든 생명현상을 설명해내는 생물학의 풍토 안에서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창조론이라는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현상을 설명하면서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철학자가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판단자로 등극해 있는 철학의 영역에서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의 실재를 고백하고 그 실재에 근거한 규범에 의거하여 이성의 한계와 오만을 비판하는 작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동료 철학자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주는 방해물 이겨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어떤 철학도는 한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논문 계획서를 심사받는 자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당신의 논문계획서는 기독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이유 하나로 탈락시킨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또한 기독교생명공학도가 대다수의 동료들과 교수들이 배아파괴를 수반하는 배아복제를 다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업적 경쟁을 하는 마당에 배아복제에 손을 대지 않고 생명공학도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교회에서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하버드대학교와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일하는 탁월한 생명공학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착하고 신앙도 좋지만 자기의 전공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수행하지는 않는다. 일반 학문이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또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독교생물학, 기독교철학, 기독교사회학, 기독교경제학, 기독교정치학, 기독교생명공학 등과 같은 학과들이 어떤 우수한 대학들 안에서도 정규전문강좌로 자리잡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학문분과들이 정말로 학문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독교”라는 명칭이 붙은 모든 것들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따돌림에 그 원인의 일부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기독교학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가 부여된다는 말은 일반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표준적인 작업 곧 학문 분야 그 자체에 고유한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 이외에 두가지 과제들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추가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극히 미세한 영역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행사되어야 한다는 통전적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각자가 속해 있는 전문분야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규범의 틀 안에서 재구성해내는 작업이다. 전문적인 학문영역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규범의 증거를 드러내는 작업은 전략상 명시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고 암시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다. 기독교학문연구자는 대체로 자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드러낼 때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항상 암시적인 방법만을 채용하다 보면 비기독교적인 용어 그 자체가 가진 의미의 한계에 스스로 묶여서 자기자신도 모르게 비기독교적인 사고의

흐름속에 젖어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일반 학문의 세계에서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일원인, 궁극적인 존재, 절대자 등과 같은 용어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용어들은 아무리 그 의미를 캐내어 보아도 인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용어들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용어들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인격적이고 희노애락의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역동적인 하나님개념으로부터 떠나서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하나님관념에 물들어 버리는 수가 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해 주어야 한다. 비록 그런 용어 사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둘째 과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견지할 때 외로움과 불이익이 찾아 오더라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지속성있게 주장을 개진하는 일이다. 부산대학교의 길원평교수는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다. “일이 안된다고 성급하게 결론내리지 말자. 열심히 수백개 수천개의 돌을 계속하여 던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들어맞을 때도 있다.” 길원평 교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전국 기독교수들의 서명을 받아내고 한기총이나 의원선교연합등을 움직여서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열매를 거두었다. 또 한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기독교철학자 알빈 플라팅가에 관한 소식이다.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앨빈 플라팅가 한사람의 영향으로 미국 전역의 대학들의 철학과 소속 교수들 가운데 1/3이 유신론철학자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외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인 바, 이 명령은 기독교인 학자들에게는 따돌림과 반감과 온갖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끈기있게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규범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